

2/6/22

2부 예배

증직자 시대

창 12:1-3

시대마다 세움을 입은 증직자들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.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또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증인들이었다. 개인 인생 뿐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 해결도 그랬다. 우리가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단어들을 듣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지만 언약을 누리면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이기도 하다

1. 구약 시대의 증직자

- 1) 아벨
- 2) 노아
- 3) 아브라함
- 4) 이드로
- 5) 오바다

2. 신약 시대의 증직자

- 1) 행 6장의 집사 (빌립과 스테반)
- 2) 백부장, 고넬료, 피장 시몬
- 3) 안디옥 교회 제자들, 루디아, 야손,
- 4) 브리스가 부부, 가이오 등 롬 16장 인물

3. 다시 잡아야 할 언약

- 1) 언약의 사람들이었다
- 2) 평생의 언약이었다
- 3) 올인한 사람들
- 4) 헌신하고 끝낸 사람들

4. 결론

- 1)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언약으로
- 2)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
- 3) 목표는 3초월
- 4) 내가 교회 살릴 플랫폼
- 5) 현장 살릴 팀 사역 전도자